

포천중고→포천1고, 일동중고→일동고 교명변경

태봉초, 송우중, 송우고 신설학교 교명 확정

포천종합고등학교가 '포천1고'로 일동종합고등학교가 '일동고'로 교명이 변경되고, 태봉초등학교, 송우중학교, 송우고등학교의 신설학교 교명이 확정됐다.

포천교육청(교육장 변진수)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포천교육청 3층 소회의실에서 교명선정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신설학교 교명선정 및 기존학교 교명변경을 위해 개최된 위원회는 신설예정학교인 가칭 태봉초등학교, 가칭 태봉중학교, 가칭 포일고등학교에 대해 교명을 선정하고, 기존고등학교인 포천종합고등학교와 일동종합고등학교에 대한 교명변경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기존고등학교에 대한 교명변경 심의를 통해 남궁돈 일동중고 교장과 이광호 포천중고 교장 교명변경 부연설명과 토의를 실시했고, 신설예정학교에 대한 교명선정 과정에 대한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명변경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해 남궁돈 일동중고 교장은 "일동중고는 종합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실업계의 인식이 있어 대학이나 사회에서 보는 편견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고, 신입생들도 꺼려하는 등 문제가 노출돼 일동지역을 대표하는 일동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호 포천중고 교장은 "포천중

고는 포천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학교로서 예전에 포천고로 불렸으며, 그후 4차례 교명을 변경한바 있다"며 "학부모, 졸업생, 재학생,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포천을 대표하는 포천1고등학교로 변경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신설학교 교명선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송호와 송우, 태봉, 송모루 등 다양한 명칭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초등학교는 태봉, 중·고등학교는 송호와 송우로 의견이 압축돼 투표가 이뤄졌다.

투표 결과 송호와 송우리 725-4번지에 위치한 신설초등학교는 10명 찬성에 '태봉초등학교', 송호와 송우리 725-2번지에 위치한 신설중학교는 전원찬성의 '송우중학교',

송호와 송우리 728-8번지에 위치한 신설고등학교는 전원 찬성의 '송우고등학교'로 선정됐으며, 포천종합고등학교의 '포천1고등학교'는 찬성8, 반대2, 기권1로, 일동종합고등학교의 '일동고등학교'는 전원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교명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경기도 교육청에 보고될 예정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등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교명선정위원회는 지역의 교명변경 및 선정을 위해 지역위원을 선정, 수시로 위촉되며 교육청과 위원들의 제시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에 위촉된 교명선정위원은 위원장에 변진수 포천교육장, 이상현 포천교육청관리과장, 박정규 포천교육청학무과장, 이상만 경기도의회의원,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 이흥구 포천시의회의원,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이영재 송호읍장, 최신영 신봉초등학교 교감, 박종구 갈월중학교 교장, 이광호 포천종합고등학교 교장, 남궁돈 일동종합고등학교 교장, 김봉균 송호읍 주민 이상 13명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교육청 장학자료 발간

학교와 학생들의 효과적인 활용기대

경기도 포천교육청(교육장 변진수)은 지난 18일 학생들의 효과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보는 체험학습 가이드 "Let's go, 포천(장학자료 2005-7호)"과 "2005년도 교실수업 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학교특색교육공모제를 통해 응모된 자료를 모아 특색있는 학교경연을 위한 아이디어북 "즐거움 특색활동 행복한 우리학교(장학자료 2005-8호)"를 발간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보는 체험학습가이드는 포천을 하루 또는 1박 2일, 2박 3일로 연계해서 현장체험을 떠날 수 있도록 같은 교통선 위에 있는 6개의 큰 구간으로 나뉘, 현장체험시 겪게되는 시간낭비와 이동용을 용이하게 체험학습장 목록을 지구별로 만들었다. 또 체험학습장 목록을 보면서 그 지구에서 부모님과 선생님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체험학습 코스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내가 정하는 체



포천교육청이 발간한 Let's go, 포천(좌)과 즐거움 특색활동 행복한 우리학교(우).

험학습 코스도 만들었다.

즐거움 특색활동 행복한 우리학교는 1교 1교과 특색교육에 절대적인 모델로 완성된 내용은 아니지만 특색있는 학교경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했으며, 교과활동·특별활동영역·특기적성·인성교

육·기타교육영역의 학교별 특색교육에 대해 수록했다.

포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장학자료 발간은 특색있는 학교경연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의 참고자료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2005 청소년 어울마당 소요산 숲 체험 행사

동두천시 주척 청소년상담센터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동두천지구협의회에서는 지난 24일 2005 청소년 어울마당 소요산 숲 체험 행사를 소요산 산림욕장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관내 학생, 학부모 90여명을 대상으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숲

해설가 협회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김완중, 이시백, 이수필)를 초빙하여 나뭇잎 카드놀이, 숲속의 보물찾기, 자연 명상하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연과의 친숙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에 진솔한 마음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청소년상담센터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동두천지구협의회에서는 지난 24일 2005 청소년 어울마당 소요산 숲 체험 행사를 소요산 산림욕장에서 가졌다.

윤성성의 미륵어파라기

27. 뭐라고 말 했어요?
What did she say?
왓다쉬세이?

*아, 한 말이라곤 겨우 "이거 해라, 저거해라"
Oh, what she said is "Do this, Do that"
오, 워쉬세드리스 온리 "두디스 두트"

28. 일과후 무얼 하세요?
What do you do after work?
왓두유두 애후터워?

*통상 운동을 하지요.
I usually do exercise.
아이유슈얼리두 엑서사이스

문의 : 윤성성
(017-723-4977)cdlyoon@nate.com

교사 탐구 26 장수초등학교 교육기획부장 심경희

영주중앙초등학교, 영주여자중학교, 안동여자고등학교, 상지대학교를 졸업한 후 안동 남후초등학교에 지난 81년 유치원교사로 첫 발령이후 2000년3월 1일 포천초등학교에 부임하여 포천과의 인연을 맺다가 2005년 3월 장수초등학교에 부임한 심경희(47·사진) 교사는 독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 중심의 독서지도로 유명하다.

지난해 포천초등학교에서 독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통해 독서교육의 진면목을 보여준 심 교사는 장수초등학교에 부임하여 학생들에게 독서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심 교사가 추진해온 독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 중심의 독서지도는 ▶놀이중심의 독서지도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가정에서의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독서놀이의 흥미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능동적인 독서 습관이 생길 수



독서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우수한 성과 거둬

'가진 능력껏 최선을 다하라'는 소신으로 교육

있도록 동기유발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독서에 대한 동기 유발을 위해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놀이에 독서를 접목시켰으며 즐기는 가운데 독서에 대한 관심과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서도 잘해요', '엄마와 함께 해요', '친구들과 함께 해요'의 세 단계 실천과제를 선정했으며 차츰 관심과 대상을 넓혀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혼자서도 잘해요'의 실천내용은 내가 만든 숨은 그림 찾기, 나만의 이야기 그림책, 동화발에 그림을 던져놓아요, 요리조리 맞춰봐요, 신기하고도 재미난 책 만들기, 독서나라의 일기 등이다.

'엄마와 함께 해요'의 실천내용은 엄마와 도서관 나들이, 속제보다 재미있는 독서과제, 우리 집 한 평 도서관, 오늘은 우리 가족 독서하는 날, 가족 독서 신문 만들기 등이다.

'친구들과 함께 해요'의 실천내용은 동시 속으로 들어가요, 나도 시인이 되어, 풍화 띠벌치 나라, 독서 포어를 지어봐요, 독서 퍼즐 만들기, 주사위로 동화 여행 떠나요, 독서 스피드 퀴즈 등이다.

'혼자서도 잘해요' 실천과제를 통해 얻게 된 결과는 혼자서 할 수 있는 학습지를 이용한 독서놀이를 많이 하였는데 내가 만든 숨은 그림찾기와 요리조리 맞춰봐요는 반 친구들이 직접 만든 것이라서 그런지 훨씬 관심이 많았으며 그런 아동은 퍼 자랄수 러워했다. 장면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친구가 그린 장면이 어떤 책인지 알아보는 모습들도 얻을 수 있었다.

'엄마와 함께 해요' 실천과제를 통해 얻게 된 결과는 반 아이들이 1년 동안 읽은 독서량이 1인당 평균 약 350권이었던. 가정의 책을 거의 읽어 책을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다고 하며 학교에서 집에 가면 습관처럼 책부터 읽는다고 한다. 독서 습관이 자리를 잡은 것 같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도서관 나들이의 경우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다. 교통안전전문 제로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도록 했으며 학급의 반

이상의 어린이들이 주말에 도서관에 들러 책을 보았다. 또 부모들도 자녀와 함께 참여해 도서관의 독서 분위기를 즐겼다.

'친구들과 함께 해요' 실천과제를 통해 얻게 된 결과는 혼자서 하는 것과는 달리 더욱 신명이 났으며 특히 주사위로 동화여행 떠나요의 독서게임들을 즐겨했는데 아이들은 짝을 지어 시간이 날 때마다 놀이를 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책에 대한 정보도 얻고, 친구와도 우정도 쌓으며, 신나게 놀 수 있었다. 동시에 관한 놀이도 두 가지를 했는데 동시 속으로 들어가요를 통해 동시 암송의 즐거움을 깨닫고, 시적 감수성과 표현능력을 키워주어 동시 쓰기를 더욱 잘하게 되었다. 또 나도 시인이 되어 는 아이들의 변칙적인 재치를 엿볼 수 있었으며 재미있게 쓴 친구의 동시를 읽어 줄 때는 아이들의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독서 스피드 퀴즈를 할때는 아이들의 얼굴엔 빨리 맞추어야겠다는 결의가 나타나며 독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했다. 이러한 독서놀이를 아이들은 문제에 나왔던 책을 찾아 읽어야겠다는 각오도 새롭게 하게 되었다.

독서퍼즐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 책을 찾아보거나 읽었던 책들을 생각하여 하라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권의 책을 찾아보게 되니 책을 여러 권 본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책을 항상 가까이 두고 만지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독서놀이는 독서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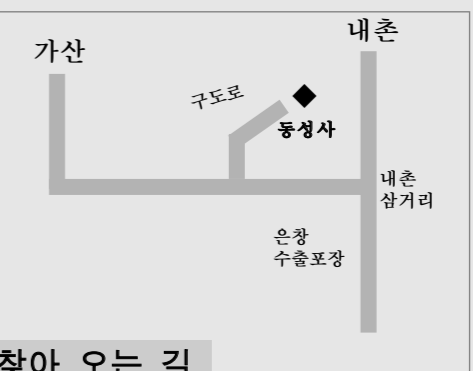
가진 능력껏 최선을 다할 것을 학생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심 교사의 이같은 독서교육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독서력은 학력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중·고등학교에서도 실력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은 학교의 순박함과 실력까지 갖춘 학생 지도에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심 교사의 모습이 교정에 심어진 배고니아 꽃 만큼이나 화려하게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 전문 동성사



- 생 · 산 · 품 · 목**
- ◇ 오디오 장식장
 - ◇ 인테리어 소품
 - ◇ 가구 장식품 부품
 - ◇ 불박이장 부품
 -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Tel: 031532-2123, Fax: 031532-2122/ 대표 : 윤 이 용